삼위일체-퀼른대성당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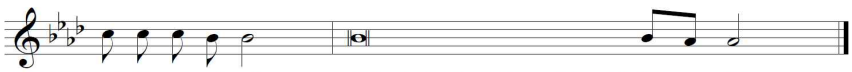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신명 4,32-34.39-40 2,1-11

[화답송] ····· 시편 33(32),4-5.6과 9.18-19.20과 22 (◎12ㄴ 참조)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

[제2독서] ····· 로마 8,14-17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복음] ····· 마태오 28,16-20

[성가안내]

- 입당성가 [81] 영광의 주 성삼위
-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66] 생명의 양식
- 파견성가 [77] 주 천주의 권능과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홍은경 골롬바	김영숙 카타리나
제임스 M. 한트/ 홍 데레사	김경련 율릿다
스텐리 캐스토르/ 하 안토니 신부	김경련 율릿다
배재철/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	한 안나
한정수 비오	유대건 미카엘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이경자 벨라뎃다	은총의 샘 꾸리아
정인해 예로니모/ 김화자 소화 데레사	은총의 샘 꾸리아
배재철 안토니오/ 전마사자 카타리나	은총의 샘 꾸리아
정영도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강주옥 소피아	김영숙 카타리나

생미사	봉헌
김기례 레지나	윤 루시아
이루리 모니카 (생일 축하)	이경자 율리안나
임영애 스텔라	이경자 율리안나
박수정 크리스티나/ 박수진 줄리아	양미숙 마리아
강복선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5월 30일	박기웅 사도요한	박기목 알버트	민재인 데레사	민재인 데레사	김종선 비비안나
6월 6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영숙 카타리나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일요일 9:15 am (한인공동체),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 **'성모 성월' -** 한달 동안 성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초와 꽃과 정성을 봉헌하는데 공동체를 대표하여 수고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모회에 감사드립니다.

5월 30일 – 성모님께 드리는 글 – 꾸리아 대표

● **신부님과 함께 하는 성경 묵상 (대면)**

신부님과 함께 대면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각자 묵상한 것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신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한달 동안 모집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신청자의 상황을 보고 추후 공지합니다**. 신청:신부님께 이름과 연락처 종이에 적어 주세요.**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 풍물패 가칭 <신명> 풍물패 단원을 모집합니다."**

꽹과리, 징, 북, 장구를 배우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박 알버트 부회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46-201-0175)** 연습할 마땅한 장소를 찾고 있으며 당분간 모임 장소는 뉴저지로 정하였습니다. 일시와 장소는 회원들이 모이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을 이어가며 본당 신자들의 화합과 하나 되는 것 외에도 **선교의 목적과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신자, 미국인등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찬미하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저는 환시도, 계시도, 그 어떠한 종류의 영적 특혜도 바라지 않나이다.
하느님을 맑히 봄은 당신의 특전이요,
하늘의 환희와
당신 성자 오른편에 영광되이 승리함은
당신만의 특전이오니,
당신은 천사와 인류와 악마까지 지배하시어
당신 뜻대로 하느님의 선물을 부어줄 수 있음은
당신께만 합당한 은혜이나이다.

오! 거룩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하신 성모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가장 좋은 몫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니, 제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나이다.
제몫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한가지 있사오니,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 소원이옵니다.
영신의 기쁨 없이도 믿을 수 있사옵고,
누구의 위로가 없이도 견디어 낼 수 있나이다.
꾸준히 제 자신을 멀리하겠으며,
죽을 때까지 당신의 미천한 종으로서
욕심 없이 열심히 살아가겠나이다.
단 한가지 은총만을 간절히 구하오니,
제가 언제 어디서나 "아멘"만 말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일에,
지금 당신께서 천국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지금 당신께서 제 영혼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제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 지소서"란 말만 아뢰도록 하시어,
당신만이 제안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영광을 기리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모후이시며,
천상의 모후이시며,
연옥 영혼의 모후이시며,
평화의 모후,
자비의 모후,
묵주기도의 모후,
티없이 깨끗하시고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님!
언제 어디서나 저희 모두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중에서
- 강 호영 대건 안드레아 발췌 -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야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 (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김동희(헬레나)**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홍봉운(바오로)**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노의선**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삼위 일체 대축일 복음 묵상

(신명 4,32-34.39-40/ 로마 8,14-17/ 마태오28,16-20)

오늘 제1독서는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하느님 당신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오늘 제2독서가 언급하듯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거나 식사를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며 십자 성호를 긋습니다. 십자 성호를 긋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며 신비입니다.

사실 그 어떤 비유와 설명으로도 삼위일체 신비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믿음과 하느님의 계시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오하고 놀라운 신비인 삼위일체 하느님의 교리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16)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먹통이다' 또는 '불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내적으로 소통하시듯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 신우식 토마스 신부 -

21년 5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금융계

금융 질서를 정립하여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게 금융 책임자들이 정부와 협력하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광고주를 찾습니다